

고속철도변 정비 10월 착공 전망

대구 서구 상리동~수성구 만촌동 11.5km 구간 고가차도·완충녹지 등 설치...市, 7월부터 보상

1조3천억원 규모의 경부고속철도 변 정비사업이 오는 10월 착공될 것으로 보인다. 이에 앞서 3월 중으로 기본적인 실시설계 협의안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.

이 사업의 공사 착수시점이 구체적으로 예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, 2010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과 함께 마무리되면 대구 도심기능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은 지난

해 8월 지상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, 당초 정부의 계획(안)보다 1천148억원이 증액된, 1조3천107억원 규모(본선사업비 6천478억원, 연변정비사업비 6천629억원)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다.

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협의가 진행 중이며 대구시는 기본적인 협의안을 마련, 3월 초나 중순쯤 보고회 형식으로 내용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. 이와 함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사업시행방안 및 지역업체 참

여방안에 대한 협의도 6월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다.

대구시 서구 상리동~수성구 만촌동 구간(11.5km)에서 이뤄질 이번 사업은 고가차도 3개소를 포함, 입체횡단 시설 16개소가 신설되고 측면도로 1.6km를 비롯해 완충녹지와 방음벽이 설치된다. 특히 신천철교 양쪽에는 폭 5m 규모의 보행자 전용교량을 건설, 시민들이 신천 야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.

시는 오는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연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방침 아래 10월쯤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다. 대구시는 시와 각 구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연변정비

사업과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가진 실무지원단을 지난해 10월말 구성, 매주 한 차례씩 운영하면서 측면도로와 녹지 등이 설계 때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.

대구시는 "1조3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을 통해 기존 철도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,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"이라고 강조하면서 "정비사업의 수탁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 중이며 본선사업에도 지역업체가 40%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"고 밝혔다.

장준영기자 changcy@yeongnam.com